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가 여고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안 현 선¹⁾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본 연구는 사회불안(대인불안, 수행불안)에 대한 행동억제와 완벽주의의 독립적 영향 및 부가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여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37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행동억제, 완벽주의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행동억제는 여고생의 완벽주의와 정적인 관련을 나타내 학령기 때 행동억제를 보였던 여고생은 완벽주의 성향이 높았다. 또한, 행동억제와 완벽주의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수에 대해 염려하는 완벽주의는 대인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반면, 행동억제는 수행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동억제와 완벽주의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행동억제가 높고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 때 가장 높은 수행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행동억제와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여고생의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지도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실용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행동억제, 완벽주의, 사회불안

* 본 논문은 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교수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사람들은 대개 친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목 받는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한다. 적당한 긴장과 불안은 인간을 사회적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살아가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당면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매우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사회적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사회불안장애는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다음으로 일반적인 정신장애로서, 주로 10대 중반에 증상이 시작된다(Kessler, McGongle, Zhao, Nelson, Hughes, Eschleman, Wittchen, & Kendler,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불안장애의 평균 발병연령은 19세 정도이며, 이 중, 14-19세 사이에 사회불안장애의 증상이 시작된 사람이 전체 표집대상의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이처럼 사회불안장애는 본격적으로 학업에 몰입하고 자아정체감을 찾기 시작하는 한편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대처기술을 학습해 나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부진한 학업성취, 낮은 자존감, 또래관계의 문제나 외로움 등의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어(Van Ameringen, Mancini, & Farvolden,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불안은 내재화 문제의 하나로, 외현화 문제에 비해서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외현화 문제 못지않게 내재화 문제의 심각성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되어온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과 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불안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불안장애의 발달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발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기질적 요인에 기초를 둔 행동특성인 행동억제와 인지적 요인인 완벽주의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변인이 사회불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불안 발생시점이 청소년기이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불안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박정희, 2009; Turk, Heimberg, Orsillo, Holt, Gitow, Street, Schneier, & Liebowitz, 1998)에 근거하여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발생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불안과의 높은 관련성에 대해 조명을 받고 있는 행동억제는 아동 중·후기까지 남아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특성으로(Gest, 1997), 사회불안장애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erot, Friedman, Snidman, Kagan, & Faraone, 2001; Gladstone, Parker, Mistchell, Wilhelm, & Malhi, 2005; Mick & Telch, 1998;

Muris, Merckelbach, Schmidt, Gadet, & Bogie, 2001; Muris, Merckelbach, Wessel, & van de Ven, 1999). 예를 들어, Gladstone 등(2005)은 성인을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행동억제정도가 사회불안장애의 하위요인인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및 특정 공포증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와 현재의 행동억제 모두가 불안장애의 하위요인 중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억제와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Muris 등의 연구(1999, 2001)에서도 불안의 하위요인들 중 사회불안에 대해서만 행동억제의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연구들에서도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억제의 직접적인 경로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다. 행동억제, 양육태도,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2003)에 의하면, 행동억제가 대인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 유제민 및 안경미의 연구(2008)에서도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여러 변인들, 즉, 행동억제,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동억제는 사회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억제만으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그 이유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억제정도가 변화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들은 상위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의 비중이 점차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양주경, 2007; 오경자, 양윤란,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통한 학습 및 여러 가지 사회화 경험 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점차적으로 아동에게 축적됨으로써 기질적 요인에 기초를 둔 행동억제가 극복되어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완벽주의는 1990년대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는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연구 또한 많지 않았다. 그러나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성격적 차원의 6요인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Hewitt과 Flett(1991)이 방향성 차원의 3요인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를 개발하여 여러 가지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연구해 나감에 따라 완벽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Rosser, Issakidis와 Peters(2003)가 성인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장애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만이 사회불안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가, 배우, 무용가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본 Mor, Day, Flett와 Hewitt의 연구(1995)에서는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중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수행불안과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특정 하위차원이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에 따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윤과 조영아(2001)는 Hewitt과 Flett의 완벽주의 차원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하고, Frost와 동료들의 완벽주의 차원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반면,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을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본 송은영과 하은혜(2008)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완벽주의를 단일 차원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다차원적으로 세분화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 등의 실질적 측면은 물론 완벽주의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들인 행동억제와 완벽주의는 또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밝혀지고 있다. 즉, 행동억제는 Hewitt과 Flett(1991)의 완벽주의 하위차원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각각 정적인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O'connor & Forgan, 2007). Flett 등(2002)은 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과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행동억제체계(BIS) 및 행동활성화체계(BAS)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모두가 행동억제체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O'connor와 Forgan(2007)도 행동억제체계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행동억제체계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완전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 행동억제, 완벽주의 간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지금까지 이들 세 요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행동억제가 높을 때 사회불안이 증가하고(박정희, 2009; 양주경, 2007; 오경자, 양윤란, 2003; Biederman et al., 2001; Gladstone et al., 2005; Mick & Telch, 1998; Muris et al., 1999; Muris et al., 2001),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에 따라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결과(송은영, 하은혜, 2008; 이정윤, 조영아, 2001)에 비추어 볼 때, 행동억제와 완벽주의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와 달리 사회불안이 더욱 상승하거나 행동억제에 대해 완벽주의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초등

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중재 효과를 살펴본 박정희의 연구(2009)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신념인 파국화(catastrophizing)가 행동억제의 하위요인인 수줍음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을 더욱 증가시키는 반면, 여아의 경우 긍정적인 일이나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인 긍정적 초점변경(positive refocusing)이 수줍음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동억제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전략이 중재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인지적 특성 또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중재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각각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있지만 행동억제와 완벽주의 중 어떠한 요인이 사회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행동억제와 완벽주의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사회불안의 위험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불안의 유형이나 완벽주의 각 차원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 이들 변인을 세분화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사회불안의 각 유형, 즉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각각에 대한 행동억제와 다차원적 완벽주의 각 하위차원들의 상대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완벽주의 각 하위차원들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간의 관계

를 중재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행동억제와 완벽주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행동억제 및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가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여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 3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여고생의 평균연령은 16.81세($SD=3.68$)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88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이 106명(28.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180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60명(42.9%)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여고생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하 63명(16.9%), 중 239명(64.1%), 상 71명(19%)으로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사회불안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재원, 양윤

란 및 오경자(2008)의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A)를 사용하였다. K-SAS-A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내용에 근거하여 1요인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2요인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중 2요인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요인은 행동억제척도와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1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관련된 총 7개 문항(문항 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걱정한다.”)을 대인불안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제작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 중 수행불안 하위척도 9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수행불안 하위척도의 문항 예로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紧张해서 대답을 잘하지 못 한다.”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사회불안 척도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불안과 수행불안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 .91$ 과 $.92$ 였다.

행동억제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번안한 Reznick, Heggeman, Kaufman, Wood와 Jacobs(1992)의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

동억제척도(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RSRI)를 사용하였다. RSRI는 초등학교 1-3학년 시기의 행동을 회상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위영역은 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로는 “내 또래의 새 친구 만나기를 좋아했다 - 역코드(사회적 회피).”, “학교에 처음 가거나 학년이 바뀌어 처음 등교하는 날에는 보통 겁을 먹었다(수줍음).”, “아파서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았다(신체화).”, “어둠을 무서워했다(단순공포).”, “유괴를 당할까봐 혹은 부모님과 헤어질까봐 걱정했다(분리불안).”를 들 수 있다. RSRI는 총 30문항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점의 해당사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차원을 합산 후 평균점수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방향성 차원과 성격적 차원의 2가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우선, 완벽주의의 방향성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재연(2004)이 번안한 Flett, Hewitt, Boucher, Davidson과 Munro(2000)의 아동·청소년 완벽주의 척도(Child and Adolescent Perfectionism Scale; CAP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완벽주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문항예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100% 옳고 완벽해지려

고 노력한다(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내 인생에서 내가 완벽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 CAPS는 총 22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8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85였다.

한편, 완벽주의의 성격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진원(1992)이 번안한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문항으로는 “만일 내가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난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실수에 대한 염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히 다 잘해낸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개인적 기준).”,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부모의 기대).”, “어렸을 때,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야단맞은 적이 있다(부모의 비난).”,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수행에 대한 의심).”, “나는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이다(조직화).”를 들 수 있다. MPS는 총 3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하위차원별로 Cronbach's $\alpha = .72 \sim .89$ 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 D구에 위치한 여자 고등학교 2학년 10개 학급을 표집하였으며, 설문지는 교사를 통해 배포되고 수거되었다. 총 385부를 배부하여 379부가 회수되었으며, 연구에 부적절하거나 미완성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37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Enter 방식의 표준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간의 관계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행동억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제외한 완벽주의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 행동억제는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억제는 CAPS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는 상관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행동억제는 MPS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그 중 특히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어렸을 때 행동억제를 보였던 여고생은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의심하는 완벽주의가 높았다.

표 1.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간의 상관관계(N=373)

	행동억제
CAPS	
자기지향	.16**
사회부과	.08
MPS	
실수에 대한 염려	.33***
개인적 기준	.14**
부모의 기대	.10*
부모의 비난	.25***
수행에 대한 의심	.37***
조직화	.12*

* $p < .05$, ** $p < .01$, *** $p < .001$

주) CAPS = Child and Adolescent Perfectionism Scale(Flett et al., 2000), MPS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et al., 1990)

2.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을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행동억제와 방향성 차원의 CAPS 완벽주의 및 성격적 차원의 MPS 완벽주의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행동억제와 CAPS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행동억제와 CAPS 완벽주의 즉,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대인불안의 경우 행동억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표 2. 행동억제와 CAPS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β) (N=373)

	대인불안	수행불안
행동억제	.45***	.56***
CAPS		
자기지향	.10	.01
사회부과	.11*	.02
R^2 (adj. R^2)	.26(.25)	.32(.31)
F	43.12***	56.82***
df	3, 369	3, 369

* $p < .05$, *** $p < .001$

주) CAPS = Child and Adolescent Perfectionism Scale(Flett et al., 2000)

26%였다. 한편, 수행불안의 경우는 행동억제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변인의 설명력은 32%였다. 즉, 아동기의 행동억제가 높을 경우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이 모두 높았다. 이외에도 대인불안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 때도 높게 나타났다.

행동억제와 MPS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행동억제와 MPS 완벽주의 즉,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및 조직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대인불안의 경우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억제,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부모의 기대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변인의 설명력은 38%였다. 즉, 행동억제성향이 높고,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의심하며, 부모의 비난을

표 3. 행동억제와 MPS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β) (N=373)

	대인불안	수행불안
<u>행동억제</u>	.30***	.46***
<u>MPS</u>		
실수에 대한 염려	.32***	.18**
개인적 기준	-.05	-.14*
부모의 기대	-.12*	-.11*
부모의 비난	.14*	.09
수행에 대한 의심	.16**	.14*
조직화	-.00	.04
$R^2(\text{adj. } R^2)$	.38(.37)	.37(.36)
F	32.14***	31.07***
df	7, 365	7, 365

* $p < .05$, ** $p < .01$, *** $p < .001$

주) MPS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et al., 1990)

염려하는 완벽주의가 높을 때 대인불안이 높았다. 반면, 부모의 기대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을 때는 오히려 대인불안이 낮았다. 한편, 수행불안의 경우는 행동억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변인의 설명력은 37%였다. 즉, 행동억제성향이 높고, 실수할까봐 걱정하며, 자신의 수행에 대해 의심하는 완벽주의가 높을 때 수행불안이 높았다. 반면, 자신 혹은 부모의 기대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을 때는 오히려 수행불안이 낮았다.

3. 행동억제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중재역할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가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대인불안,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완벽주의 하위차원 중 MPS의 부모의 비난만이 행동억제와 상호작용하여 여고생의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9$, $p < .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위 20%와 하위 20% 표본을 추출한 후 행동억제 상하집단과 부모의 비난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그래프화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부모의 비난이 높고 낮음에 따라 여고생의 행동억제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행동억제가 높을 때 부모의 비난의 정도에 따라 수행불안의 차이가 있어, 부모의 비난이 높은 청소년($X=3.07$, $SD=.96$)이 부모의 비난이 낮은 청소년($X=2.26$, $SD=.62$)보다 수행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t=3.20$, $p < .01$). 반면, 행동억제가 낮을 때에는 부모의 비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수행불안의 차이가 나타나

표 4. 수행불안에 대한 행동억제와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 =373)

	수행불안		
	Model 1	Model 2	Model 3
행동억제(A)	.56***	.53***	.35***
부모의 비난 완벽주의(B)		.12**	-.29
A X B			.49*
R^2	.32	.33	.34
ΔR^2		.01	.01
F	171.07***	90.37***	62.48***
df	1, 371	2, 370	3,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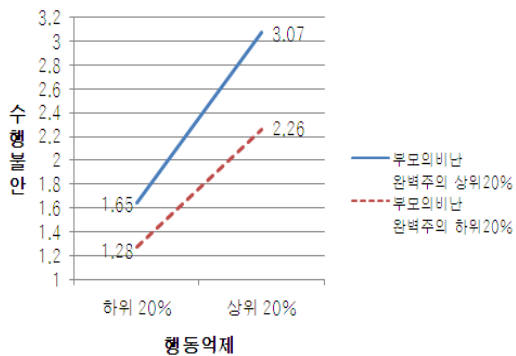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 상하집단과 행동억제 상하에 따른 수행불안 점수

지 않았다($X=1.65$, $SD=.90$ vs. $X=1.28$, $SD=.33$, $t=.98$, ns). 즉, 여고생의 행동억제가 높은 경우,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수행불안에 차이를 보여 행동억제가 높고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을 때 수행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고생 373명을 대상으로 행동억제와 완벽주의 하위차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가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억제와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행동억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제외한 모든 완벽주의 하위차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행동억제는 CAPS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행동억제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Flett et

al., 2002; O'Connor & Forgan, 2007)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행동억제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완벽주의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려워하는 기질이 완벽주의 발달을 예측하는 아동 개인내적 요인일 것이라 추측한 Flett 등(2002)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행동억제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근거한 완벽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행동억제와 CAPS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모두에 행동억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나, 대인불안에는 행동억제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영향을 미친 반면, 수행불안에는 행동억제만이 영향을 미쳐 사회불안 하위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을 유발시키는 주요 변인임을 밝힌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Elisabeth, Ollendick, Gullone, Tonge Watson, & Macdennott, 2006; Hirshfeld-Becker, Micco, Henin, Bloomfield, Biederman, & Rosenbaum, 2008; Kashdan & Herbert, 2001; Neal & Edelman, 2003).

또한, 선행연구에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송은영, 하은혜, 2008; 이정윤, 조영아, 2001; Frost et al., 1993)는 본 연구에서도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사회불안과 무관한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이정윤과 조

영아의 연구결과(2001)와 유사하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대인불안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수행불안보다는 대인불안과의 관련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행동억제와 MPS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불안은 실수에 대한 염려로 인한 완벽주의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된 반면, 수행불안은 행동억제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면한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과잉불안염려의 비합리적 신념을 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박선영, 2003), MPS의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 또한 과잉불안염려의 비합리적 신념과 개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행동억제가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행동억제가 대인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고(오경자, 양윤란, 2003) 수행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는 등(양주경, 2007)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행동억제의 하위요인에 따라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본 연구에서와 같이 RSRI의 행동억제 하위요인과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호유나의 연구(2005)에 의하면, 행동억제의 하위요인 중 분리불안은 대인불안을, 사회적 회피는 수행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를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든 차원을 합산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행동억제가 대인불안보다 수행불안을 더 잘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행동억제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억제의 하위요인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MPS 완벽주의 하위차원에 따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은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의심하는 완벽주의가 높을 때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이 높았다. 이는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이 사회불안집단과 통제집단을 가장 잘 구별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정운, 조영아, 2001; Antony, Purdon, Huta, & Swinson, 1998; Juster, Heimberg, Frost, Holt, Mattia, & Faccenda, 1996)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수를 실패로 생각하여 이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부모의 기대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의 기대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을 때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이 낮았다. 부모의 기대가 부적응적 측면으로 보고되거나(Frost et al., 1993),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된 선행연구

(Juster et al., 1996)와 달리 본 연구에서 부모의 기대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간과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비임상집단에서 사회불안 경험자를 추출하여 사회불안 발생 당시를 회고하는 면접을 실시한 Chartier, Hazen과 Stein의 연구(1998)에 의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부정적 사고패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부모나 상담사 등 조언자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사회불안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긍정적인 개념, 혹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부모의 비난은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쳐,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을 때 대인불안이 높았다. 부모의 비난은 부모로부터 완벽하기를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부모의 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부모의 기대가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치는 반면, 부모의 비난은 수행의 잘잘못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비난이 대인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부모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개인적 기준은 수행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쳐, 자신의 기대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

을 때는 수행불안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기준이 적응에 긍정적인 측면임을 보고한 선행연구(Frost et al., 1993)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개인적 기준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도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적 기준은 오히려 수행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대로 인한 완벽주의적 성향은 여고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여고생의 학령기 행동억제와 현재 완벽주의가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행동억제나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적 특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 수행불안이 더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완벽주의의 다른 하위차원들은 행동억제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일반집단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행동억제와 완벽주의는 각각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MPS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는 대인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한편, 행동억제는 수행불안을 가장 잘 예측했다. 또한, 완벽주의 하위차원들은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각기 다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CA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으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을 때 대인불안이 높았다. 반면, 수행불안의 경우는 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완벽주의가 높을 때 수행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동억제와 완벽주의성향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령기의 행동억제가 높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적 특성이 높을 때 여고생의 수행불안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특정집단에 한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포함할 뿐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지각이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문지 외에도 관찰, 면접, 검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행동억제와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의 주요 예측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사회불안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

- 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희 (2009). 아동기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675-693.
- 송은영, 하은혜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 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 환경, 역기능적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05-312.
- 이재연 (2004).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분노표현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윤, 조영아 (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93-104.
- 현진원 (1992). '완벽주의'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호유나 (2005).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tony, M. M., Purdon, C. L., Huta, V.,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1143-1154.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Kagan, J., & Fa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673-1679.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hartier, M. J., Hazen, A. L., & Stein, M. B. (1998). Lifetime patterns of social phobia: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course of social

- phobia in a nonclinical population. *Depression and Anxiety*, 7, 113-121.
- Elizabeth, J., King, N., Ollendick, T. H., Gullone, E., Tonge, B., Watson, S., & Macdermott, S. (2006).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ren and youth: A research update on aetiological factor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9(2), 151-163.
- Flett, G. L., Hewitt, P. L., Boucher, D. J., Davidson, L. A., & Munro, Y. (2000). The Child and Adolescent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and association with adjustmen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89-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est, S. D. (1997). Behavioral inhibition: Stability and associations with adaptation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67-475.
- Gladstone, G. L., Parker, G. B., Mitchell, P. B., Wilhelm, K. A., & Malhi, G. S. (2005).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and lifetime anxiety disorders in a clinical sample. *Depression and Anxiety*, 22, 103-11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irshfeld-Becker, D. R., Micco, J., Henin, A., Bloomfield, A., Biederman, J., & Rosenbaum, J. (2008). Behavioral Inhibition. *Depression and Anxiety*, 25, 357-367.
- Juster, H. R., Heimberg, R. G., Frost, R. O., Holt, C. S., Mattia, J. I., & Faccenda, K. (1996). Social phobia an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3), 403-410.
- Kashdan, T. B., & Herbert, J. D.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 Kessler, R. C., McGonagle, K. A., Zhao, S., Nelson, C. B., Hughes, M., Eshel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Mick, M. A., & Telch, M. J.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2(1), 1-20.
- Mor, S., Day, H. I., Flett, G. L., & Hewitt, P. L. (1995). Perfectionism control and components of performance anxiety in professional artis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07-225.
- Muris, P., Merckelbach, H., Schmidt, H., Gadet, B., & Bogie, N. (2001). Anxiety and depression as correlates of self-reported behavioural inhibition in normal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1051-1061.
- Muris, P., Merckelbach, H., Wessel, I., & van de Ven, M. (1999). Psychopathological correlates of self-reported behavioural inhibition in normal childre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575-584.
- Neal, J. A., & Edelmann, R. J. (2003).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Toward a developmental profi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61-786.
- O'Connor, R. C., & Forgan, G. (2007). Suicidal thinking and perfectionism: The role of goal adjust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activation systems(BIS/BA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5(4), 321-341.
- Reznick, J. S., Hegeman, I. M., Kaufman, E. R., Wood, S. W., & Jacobs, M. (1992).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self-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ir relation to adult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301-321.
- Rosser, S., Issakidis, C., & Peters, L. (2003). Perfectionism and social phobia: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s and impact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2), 143-151.
- Turk, C. S., Heimberg, R. G., Orsillo, S. M., Holt, C. S., Gitow, A., Street, L. L., Schneier, F. R., & Liebowitz, M. R. (1998).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3), 209-223.
- Van Ameringen, M., Mancini, C., & Farvolden, P. (2003). The impact of anxiety disorders on educational achievemen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 561-571.

1 차원고접수 : 2010. 01. 05.

수정원고접수 : 2010.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3.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Perfectionism on High School Girls' Social Anxiety.

Ahn, Hyun-Sun

Park, Seong-Yeon

Interdisciplinary programs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i.e., interpersonal anxiety & performance anxiety). A total of 373 high school girls(mean age= 16.8 y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sub-dimensions of perfectionism excep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2) 'Concern over mistakes' among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interpersonal anxiety, whereas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performance anxiety. 3) Behavioral inhibition and perfectionism concerning parental criticism additively predicted higher performance anxiety. Specifically, high school girls with higher behavioral inhibition and higher perfectionism regarding parental criticism showed the highest performance anxiety. To conclude, both behavioral inhibition and perfectionism were significant antecedent variables in predicting social anxiety amongst high school girls.

Key words : behavioral inhibition, perfectionism, social anxiety